

네트워크회의  
유네스코 APCAD 연례회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의 원동력  
: 글로벌 네트워크

정지우  
[광주교육대학교 학생]

『2022 유네스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위한 부트캠프』를 위해 세계 각국 도시의 청년 대표들이 2022년 07월 03일부터 2022년 07월 08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폴리카에 모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타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논의했다. 특히 인종, 성별, 신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토대로, 서로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본 캠프 참여자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 아이디어들을 실현하기 위해 각 단위 별 후속 프로젝트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개개인은 다중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출신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러 사회 집단, 자신이 가진 사상 등등을 토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이자 연대기에서 기인하는 자신만의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구조라 정의 내려지던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라는 표현이 담아내고 내포해야 할 의미를 담아내기엔 좁은 범주의 개념이 되어버렸다. 또한 다원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보아도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통적인 성질과 특징을 끌어내 이들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는 것은 무의미해졌고, 오히려 이러한 분류가 ‘편가르기’로 변질되어 누군가에 의해 일반화된 집단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별을 가하게 되는 사회적 오류를 발생시키곤 한다.

이러한 기초 하에, 광주 메트로폴리탄의 후속 프로젝트로 아시아계 인종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구촌에서 아시아의 입지와 위상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에서부터 이와 관련한 글로벌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때, ‘세계화의 지역화’를 뜻하는 ‘글로벌’의 의미를 살려,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각 도시 단위에서부터 실현하고 그 효과를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 본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한 타 단위에서의 성공 사례를 지역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로의 도약을 위해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이어나가고 있다.